

도문시 공기질, 길림성 선두를 달린다



최근, 길림성생태환경청은 2024년 1월 성내 각 현(시, 구)의 PM2.5 평균 농도 순위를 발표했다. 도시 공기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도문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7\mu\text{g}/\text{m}^3$ 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0% 감소하여 전 성 41개 현(시, 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365일 도문 남색’에서 ‘장기적인 남색’에 이르기까지 변경 관광도시 도문은 푸른 하늘이라는 행복한 순간을 수호하면서 전 성 1위의 ‘환경보호 답안지’를 제출했다.

최근년간, 도문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배출오염을 줄이며 탄소 배출을 낮추는 등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환경 공기질의 효과적인 개선에 전력을 다하여 년간 공기 우량일 비례 100%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365일 도문 남색’을 ‘장기적인 남색’으로 만든 방법은 무엇일까?

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 도문

시분국은 일상적인 대기오염 예방·치 사업을 전개하고 대기 생태환경의 질을 전면적으로 공고히 하고 향상시켰다.

주생태환경국 도문시분국 증광은 “PM2.5는 공기중 아주 작은 입자로 대략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의 28분의 1에 해당한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감측설비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감측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 PM2.5는 $24\mu\text{g}/\text{m}^3$ 이다. 일단 이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는 수시로 경보를 울린다.”고 소개했다.

도문시의 열공급기업은 현재 20증기톤(蒸吨) 이상의 연탄보일러 4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열공급기업은 공기원 열펌프장치 115대와 수원 열펌프장치 3대를 설치했다. 전통 열공급기업에서 배출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열공급 공정을 보급, 실시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고 동시에 오염

을 방지하게 한다. 환경보호 집범일군은 현장 검사와 온라인 감측을 통해 열공급기업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행과 공장구역의 먼지 억제 상황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하고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환경보호 주체 책임을 락착하도록 독촉한다. 열공급 면적이 21만 5,400평방미터에 달하는 청정에너지 열공급 대상은 연기와 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낮추었다.

두만강변에 위치한 이 공기원 열펌프시설은 주변 단위와 주택 6만평방미터의 겨울철 열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도문시록산열공급유한회사 공정관리원 공변강은 “우리는 주로 청정에너지 열공급을 책임지고 있으며 공기원 열펌프 + 전기가열기술 + 수원 열펌프 등 기술에 의거하여 열공급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의 공기원 열펌프는 친환경 환경보호, 무배출, 무오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

했다.

시민 리옥하는 “도문의 하늘은 특별히 푸른 것 같습니다. 공기도 아주 신선하며 평소 광장무를 출 때 오염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호흡도 아주 원활합니다.”라고 말했다.

‘황무지 소각’은 농민들이 짚을 태우는 것에 대한 통속적인 표현으로 월청진 수구촌의 촌민 임국신은 이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임국신은 “예전에 우리는 모두 짚을 태웠습니다. 그 연기로 인해 공기가 좋지 않았지요.”라고 말했다.

‘오염 감소’의 중요한 조치로 짚 태우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래 이미 3년 연속 ‘명점화(零火点)’를 실현했다. 짚 태우기 전면 금지 실시 방안과 여러 단계로 체결한〈짚 태우기 금지 책임서〉는 전체 지역의 짚 태우기 금지 순찰감독관리와 서로 잘 어우러졌고 집중적으로 짚을 태워 조래한 환경오염과 스모그 날씨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임국신은 “지금은 정책이 좋아 정부에서 포장대를 파견하여 짚을 포장해 줍니다. 하늘도 푸르고 공기도 좋아졌지요.”라고 말했다.

푸른 하늘은 현지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이며 또한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명함이다. ‘도문 남색’은 점점 더 많은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관광객들은 웅장한 국문을 배경으로 ‘파란 바탕이 비치는 사진’을 찍고 있다.

안휘성 관광객 고민은 “오늘 도문에 놀러 왔습니다. 도문은 날씨가 아주 좋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공기질도 아주 좋습니다. 사진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도문에는 두곳의 공기질 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있다. 특히 면적의 증가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하고 디젤유, 화물차 등 고배출 차량에 대한 감측을 통해 차량 배기가스가 정상 수치에 도달하도록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환경보호 조치는 최종적으로 일상화 환경보호 감측의 녹색안전수치로 구현되고 있다.

주생태환경국 도문시분국 부국장 김남은 “환경보호는 일상화 감독관리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국은 공기질 개선을 핵심으로 동요하지 않고 각종 공기질 감측 수치가 국가 공기질 2급 표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하며 ‘도문 남색’을 수호하고 ‘장기적인 남색’을 지켜 시민들이 더욱 맑은 공기를 호흡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소개했다.

/ 정현관기자
/ 사진 도문시관광국

장춘 시민

량질의 산부인과 의료자원 누릴 수 있어

절강대학의학원부속산부인과병원, 장춘시산부인과병원, 장춘시부유보건원 서부원구 공사현장에서 일군들이 한창 질서있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한내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대상은 올해 말까지 부분적으로 사용에 들어가며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절강대학의학원부속 산부인과병원 길림병원, 장춘시산부인과병원, 장춘시부유보건원 당위 서기인 장효결은 “성, 시 정부의 추진하에 2023년 10월 13일 국가구역의료중심 건설 대상인 절강대학의학원부속산부과병원 길림병원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병원은 ‘일원량구’ 구도에 따라 건설을 추진하고 오마로원구(五马路院区)와 서부원구는 일체화 관리를 실행하며 차이성 발전, 동질화 건설을 시행한다. 서부원구는 2022년 10월에 정초식을 가졌고 2023년 3월에 시공을 했으며 건축면적은 13.38만평방미터에 달하고 주로 응급의료기술허사, 임원정사, 감염정사, 아동보건및재활중심(산후전강보호중심), 과학연구 혁신및성과전환청사 등 시설을 포함하며 침상 1,000개를 설치한다. 사용에 투입되면 일평균 5,000명의 진료 수요를 만족시킨다.”고 소개했다.

이 대상의 수출 병원에서 전국 산부인과 ‘제1진영’에 있는 절강대학의학원부속산부인과병원은 인재, 기술, 브랜드, 관리 등의 ‘4개 평행이동’과 ‘장기 파견, 기동파견, 유연파견’ 등 3가지 방식으로 대상 의과 병원의 장춘시산부인과병원에 전문가팀을 파견하여 문진, 수술, 교육,

검진, 학술교류, 간호관리 등 사업을 전개한다. 현재 부녀과 종양, 생식의학, 산부인과 등 다양한 분야 14명의 절강대학의학원 부속산부인과병원의 전문가들이 오마로원구에 주재하고 있으며 여러 병원 차원의 위중증 환자 구조 작업을 조직하고 구조 성공률 100%를 달성시켰다. 생식의학중심은 생식외과 수술의 공백을 메우며 동시에 산부인과, 부녀과, 생식의학, 신생아 등 영역의 ‘3신기술’ 12개를 도입했다. 이외 49명의 핵심골간을 선발하여 절강대학의학원부속산부인과병원에 연수, 학습을 보내 병원의 진료, 관리 및 봉사 수준을 점차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서부원구가 사용에 투입되면 생식의학, 부녀과 종양, 위중한 임신부 관리, 녀성건강 전 주기 정밀화 관리, 녀성보건, 아동보건 등 분야에서 더욱 큰 발전 공간을 가지게 된다.

“이 대상으로 선진병원의 량질 의료자원이 길림성에 배치되고 여러 영역에 전파되며 전방위 합작을 실현하게 된다.”고 표하면서 장효결은 “병원은 국내 선진, 지역 일류의 의학진료중심의 건립에 힘쓰고 고차원의 산부인과 인재양성기지, 고수준의 산부인과 연구혁신 플랫폼, 고표준의 정보화 지혜병원을 형성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산부인과 량상진료의 본보기와 의학연구 고지를 건설하고 산부인과 진료의 난제를 효과적으로 줄이며 지역 백성들이 ‘집앞’에서 량질의 산부인과 의료자원 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 길림일보

연변

생태환경 분야의 고품질 발전 효과적으로 추진

지난해 9월,〈2023년 연변 생태환경 분야 ‘한가지 난관공략, 다섯가지 제고’로 고품질 발전 촉진 전문행동 실시방안〉을 발부하면서 연변 상하는 우에서 아래를 연술하고 분공이 명확하며 협력하여 난관을 공략하는 량호한 사업국면을 형성했다. 동시에 ‘피동적인 대처’로부터 ‘주동적으로 사업’하고 ‘중점 난관공략’으로부터 ‘체계적인 정돈’으로의 중대한 전환을 실현했다.

〈2023년 연변 생태환경 분야 ‘한가지 난관공략, 다섯가지 제고’로 고품질 발전 촉진 전문행동 실시방안〉에서 ‘한가지 난관공략’은 각급 생태환경보호 독찰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돈하는 것을 말하고 ‘다섯가지 제고’는 체계적으로 수질, 대기질, 토양질, 생태계통 다양성, 처리능력 등 5대 분야의 환경질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방안은 첨부 문건의 형식으로 ‘임무 명세’를 열거했다. 생태환경보호 독찰 ‘한가지 난관공략’ 임무 명세는 24가지 구체문제, 목표, 임무와 시달 책임 단위 및 완성 정황 번호, 목록을 상세히 구현했다.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책임시달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난관을 공략했다. ‘한통의 편지’ 형식으로 부문, 현(시) ‘1인자’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동했다. 동시에 주생태환경보호독찰반영문제정돈지도소조판공실은 현(시)정부 및 주 직속부문 주요 지도자와 정돈사업 책임서를 체결하는 것을 통해 정돈책임, 정돈조치, 정돈기

한을 구체화하고 해결을 다그쳤다. 지금까지 24가지 독찰정돈 중점, 난점 문제 가운데 이미 22가지를 해결하고 나머지 2가지도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다. 5대 분야에서 조사해낸 95가지 수환 가운데 이미 88가지를 해결하고 나머지 7가지는 사업 추진 방안을 제정하고 질서 있게 추동하고 있다.

결과방향을 견지하고 추적감독 지도의 실효를 강화했다. 2023년 9월초에 전문행동을 전면 가동한 이래 연변은 력량을 집중하여 생태환경보호 독찰정돈 중점, 난점 임무를 공략했다. 독찰정돈판공실은 지속적으로 독찰정돈 정황을 조사하고 선후하여 28개 독찰 중점임무, 신소사건 정돈에 대해 현장 지도를 진행하여 독찰정돈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했다. 또 조사, 분석, 연구판단을 강화하고 제시, 경보, 감독, 담화 ‘4보조 사업법’으로 정돈사업의 전 과정을 감독, 추동했다.

한편 지난해말까지 연변은 공기질 우량일 비율이 99.2%에 달했고 공기질 종합지표는 연속 4년(2020년—2023년) 전 성 제1위를 차지했다. 전 주 24개 국가 통계 단면의 우량 수질 비율이 95.8%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13.2%포인트 상승, 전 성의 평균 수준보다 10.2%포인트 높아 ‘14.5’이래 가장 좋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 주에서 사용중인 9개 현금 및 그 이상 도시집중식 식용수 수원지의 수질 우량률은 100%에 달했다.

/ 길림일보

청명절 기간 연변 안전형세 총체적으로 안정

4월 7일, 연변조선족자치주응급관리국에 따르면 청명절 기간 연변의 안전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되고 생산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및 화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면밀하게 배치하고 안전책임을 전면적으로 다졌다. 주정부는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안전생산, 삼림방화 등 사업에 대해 포지했다. 주안전위원회 판공실은〈청명절 기간 안전예방사업을 한층 더 잘할 데 관한 통지〉,〈전 주 도로교통안전 감독관리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제시서〉,〈공사건설 시공 분야의 사업 재개 안전예방을 강화할 데 관한 제시서〉등을 발부하여 민감한 시간대 중점 분야의 안전예방사업을 재배치하고 다시 제시했다. 주삼림방화지휘부 판공실은 ‘백과 흑’ 당직근무체계를 가동하여 ‘당정 공동 책임, 한가지 일터 두가지 책임’ 사업체계를 전면적으로 승화하고 층층이 압력을 가하여 각급 방화 책임을 확실히 다졌다.

중점 분야를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잠재적인 위험을 제때에 제거했다. 협의와 연구판단을 거쳐 교통운수, 관광, 가스, 건축시공, 소방 등 중점 분야 특히 묘지, 릉원, 삼림공

원, 가스충전소 등 중점 분야의 소방 안전을 예방사업의 중점으로 삼았다. 문화관광, 상무,公安부문은 왕홍지점 등 인원 밀집 장소를 주시하고 안전생산 감독검사를 강화했다. 청명절 기간에 연변은 루계로 검사조 982팀, 연인수로 2,878명(교통경찰 제외)을 파견하여 생산업체 3,533가구를 점검하고 안전 우환 96개를 정돈하였으며 516개를 개선하고 기한내에 16개를 시정하도록 했다.公安교통경찰부문은 제사장소, 관광지, 도시 출입구 등 주변 도로구간에 경찰력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고 교통경찰 집범소 16곳을 가동하고 림시근무소 31곳을 설치하며 총 3,154명의 경찰력과 618대의 경찰차를 출동시켰다. 특히 주내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경찰들을 배치하여 도로면의 ‘경계물’을 높이고 법률, 법규 위반 사건 452건을 단속함으로써 비교적 큰 교통사고로 인한 장시간, 장거리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했다. 주안전위원회 판공실은 4개 종합감독지도팀과 탄광, 비탄광산, 위험화학품, 공업 무역 등 4개 전문 검사팀을 설립하여 24시간 감독검사를 실시했다. 각 현(시), 부문에서는 명절 기간에 다양

한 안전예방사업을 전개하고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시정했다.

산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재원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화재원 리합통제 ‘10가지 금지’ 요구를 참담게 실행하고 ‘지역 합동예방’, ‘촌민 합동예방’, ‘경찰과 지방 합동예방’ 등 형식으로 국경선, 묘지, 릉연지연(林缘地缘), 관광지 등 중점 구역에 중시를 돌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사를 지내는 등 중점 인원들을 주시하며 순찰인원을 늘이고 주야로 순찰하며 엄격히 예방하고 사수했다. 하루 평균 5,039명에 달하는 시스템 관리자, 보안요원, 안전감사인원들이 근무를 서고 688개의 고정근무소, 1,389개의 림시근무소, 229개의 방화전망대와 65개의 영상감시통제를 설치하여 24시간 화재 상황을 감시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처리를 확보했다. 청명절의 소각금지, 문명제사 등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방화정보 280건을 발표하였으며 선전교양활동을 18차 전개하고 산행, 도로변, 관광지, 고속철도 려객터미널 등 중점 구역에 방화경고기 발 1,100개를 설치하고 전단지 1만 3,500부와 현수막 237폭을 배치하여

량호한 삼림방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삼림방화지휘부 판공실은 5개 감독지도소, 연인원 45명을 파견하여 향진, 촌툰, 릉정에 심입하여 감독검사를 전개했다. 각 현(시), 삼림공기업은 887개 검사팀, 연인원 2,997명을 동원하여 밤낮으로 야야 화재원 및 화재 위험을 조사하고 455개 잠재 위험을 정돈했으며 597차의 불법화재 행위를 제지시키고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불을 사용한 607명에게 경고 혹은 처벌을 내렸다.

응급준비를 강화하여 제때에 처리하도록 확보했다. 연변의 응급시스템은 전투대비 상태를 유지하고 매일 수시로 전화출출검사, 영상배치 등 방식으로 각 현(시), 부문을 점검하며 당직근무와 사업 전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당직이 있고 질서가 정연하며 효과적인 당직을 보장했다. 105개의 전문 및 반전문 삼림소방대오의 2,306명 지휘원, 전투원들을 전부 집결시키고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 후원시삼림소방대대 2중대 38명의 지휘원, 전투원들은 왕청현 병풍산 항공호림리 착륙장에 주둔하면서 ‘조기타격’을 확보했다.

/ 오건기자